

‘피해 맞춤형’이라지만... 선별·보편 애매한 잣대에 싸늘

코로나 7.8조 4차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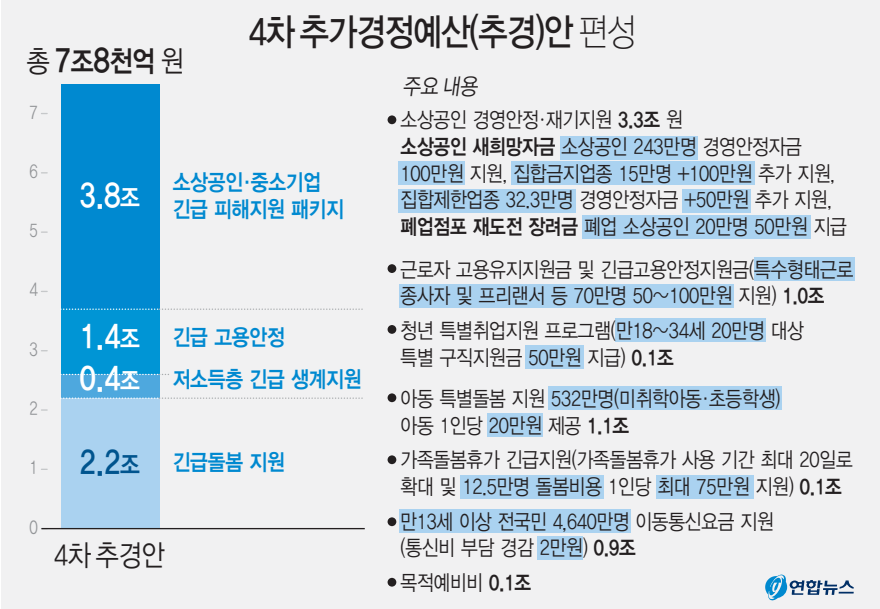
추경 절반 규모 자영업자에 편성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에 50~150만원
통신비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지원기준 놓고 여론 ‘떨떠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0일 확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원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직종에 집중 투입된다. 하지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나 돌봄지원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전제로 확대되는 등 선별·보편 지원 기준이 애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국민 불만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의 방역·경비보강 패키지로 구성, 총 12조4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과 아울러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의 계층에 주로 지원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



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예산을 담았다”며 “가장 힘든 분들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국민들의 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집합금지업종 등에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소상공인의 86% 해당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000억원 가운데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으로 현금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

종은 100만원씩,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제도 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 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는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엔 50~150만원

정부의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

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실직 등 4인 이상 생계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이 완화돼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co.kr

“자본시장 중앙은행” 제역할 의문

>> 1면 ‘증권사 금리인하 속’서 계속

이 관계자는 “증권금융 입장에서 예대마진이 주 수익인 만큼 가능한 차익을 많이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증권사는 경쟁해야 하지만 독점 기업인 증권금융이 증권사의 조달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신용융자 관련 해선 증권사 측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뿐 우리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증권금융은 직전 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조달해 준다. 가산금리는 증권사별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ROE) 등을 따져 0.1~0.5%포인트 선에서 차등해 책정된다. 현재 CD금리(91일)가 0.63%인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증권사에 조달되는 신용융자 이자는 대략 1.7~2.2% 정도다. 이렇게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를 받고 나서 인건비와 전산처리 비용 등 업무원가를 제외한 것이 증권금융이 남기는 마진이다.

지난 3월 6조4000억원대까지 내려갔던 신용융자대출 잔고는 현재 3배 가까이 올랐다. 증권금융의 이자수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공시를 살펴보면 증권금융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492억원으로 1093억원이던 전년 동기보다 36.50%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141억원으로 31.30% 증가했으며 투자자에탁금이 크게 늘며 신탁업무순이익도 28.96%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1215억원에서 790억원으로 크게 줄었음에도 나온 결과다.

‘자본시장 중앙은행’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증권사 자금운용 부서 관계자는 “금리도 금리지만 대출량이 작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몇 년째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증권금융과 협의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해오는 구조다. 그는 “시중에서 그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증권금융이 유일한테 담보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중소형사는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지난 3월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해외지수연계주거연계증권(ELS) 발행증권사가 마진콜(추가증거금 납입)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당시 더욱 거세졌다. 증권금융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재원을 늘리기 위해 20년 만에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안이 유력하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현재 기관 주주를 만나 증자를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금융의 모든 순간

NH투자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원칙 | 윤리경영